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달동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달동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달동네

완성된 이름

달동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달동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산등성이나 산비탈 따위의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달동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산등성이나 산비탈 따위의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달동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산등성이나 산비탈 따위의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달동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달동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달동네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달동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달동네



달동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ㄱ 말의 구성과 어원

‘달동네’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달동네’는 ‘달’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하는 ‘동네’가 결합한 것이다.

📖 문헌 속의 달동네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달동네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달동네

📖 출처 1981 조선일보 3월 6일 3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달동네」를 새벽부터 누비며 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데.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81 조선일보 3월 29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통금이 풀리자마자 일터로 나가야 하는 시장 바닥 상인들, 공장 근로자들, 그리고 막일꾼들이 몰려 사는 「달동네」이기 때문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81 동아일보 5월 13일 2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달동네 독방촌의 빈민 생활을 알고 있는가.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달동네에 관한 주석

‘달동네’가 198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하지만 처음 쓰인 시기와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는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고 ‘달동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1950년대 말 ~ 1960년대 중반 도심 개발로 밀려난 판자촌 주민들이 새 주거 지역에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살 때 밤에 누우면 달과 별이 보인다고 ‘달나라 천막촌’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서 ‘달동네’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판자촌, 하꼬방 등으로 불렸었다. 천막촌을 ‘달나라’라고 한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매일경제 1971년 9월 11일 6면) 달나라 천막촌이라는 말도 썼을 가능성이 높다. 달동네에 관해 소개하는 곳에서는 이 견해를 따라 설명한다. 둘째는 1950년대에 판자촌에서 눈 위에 비친 달빛이 황홀하여 ‘달동네’라고 한 데서 생겨난 말이라는 것이다. ‘달동네’라는 이름이 들어간 소식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실제로 쓰인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다달이 월세를 내는 달세방이 많은 동네라서 ‘달동네’가 되었다는 등 다른 설들도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

달동네의 보충 설명

‘달동네’라는 말은 1980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던 ‘달동네’라는 제목의 일일 연속극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연속극이 방영되는 중이던 1981년에 이미 연속극 제목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 사용된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달동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기완 1998 내가 만든 신조어 '달동네' 경향신문 1998년 4월 20일 25면
- - 1991 만물상 조선일보 1991년 9월 29일 1면
- 유승훈 2009 도시민속학에서 바라본 달동네의 특징과 의의 -부산의 달동네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25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달동네의 뜻과 역사